

# 화순, 농기계 임대사업 효과 '톡톡'

4년 연속 우수 사업소 선정  
현장 배송서비스 실시 호평  
일손부족 해소·경영비 절감

화순군이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일손부족 해소,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과를 내면서 영농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임대사업소 임대 실적, 임대 일수, 이용 농가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누적 임대 건수는 6,782건으로 전년 대비(6,247건) 8% 증가했고, 2018년(3,593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화순군은 임대 건수와 이용자가 늘어나자 현장 맞춤형 임대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가 이용 편의시설을 확대해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며 66종 394대를 보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임대 실적이 증가해 2021년 임대 건수는 6,782회, 이용일수는 7,749일로 전년 대비 각각 8% 증가했다.

농기계 임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에도 힘쓰고 있다.

2020년 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선정돼 확보한 3억4,000만 원을 투입해 21종 52대를 구입, 배치했다. 지난해에도 전국 14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화순군농기센터 제공

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돼 2022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현장 배송서비스를 실시해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해 배송서비스는 614회로 전년 558회 대비 10%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고령 농가와 여성 농업인, 귀농인 등 농취약계층에게 인기가 많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료 50% 감면 정책, 농번기 확대 근무, 고

은살균 세륜장 운영 등 군민의 소득·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농가 소득 보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만2,000회 2,067곳 농가에 2억1,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영농철에 언제든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에는 8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임대사업소를 운영했다.

농기계 고은살균 세륜 시설을 동북분소

에 추가 설치해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 후 별도의 세척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7억8,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농기계 24종 119대를 교체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 농기계 관리·수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의 신속 도입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화순8경 사진 공모

화순군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사진 예술 창작 기회 확대와 주민 문화향유 지원을 위한 '화순8경 사진 공모'에 나섰다.

4회째를 맞는 화순8경 사진 공모는 '화순 이야기 사진전'에 참여할 작품 공모이기도 하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2018년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화순 이야기 사진전 시리즈는 화순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장기 기획으로, 전시에 참여한 작품은 화순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으로 축적되고 있다.

화순8경은 화순적벽, 운주사, 백아산 하늘다리, 고인돌유적지, 만연산 철쭉공원, 규봉암, 연두리 숲길, 세랑지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비경을 보기 위한 관광

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매력적인 장소이고 전국의 수많은 사진작가의 단골 피사체이기도 하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사진 공모를 통해 순위 없이 50점의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작은 각 10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작품으로 제작해 2022년 '화순 이야기' 4·8·경 사진전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

화순8경 사진 공모는 오는 1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천불천탑 사진문화관(061-379-5893)으로 하면 된다.

/화순=이종백 기자

## 용산~안양면 잇는 정남진대교 임시개통

### 해안 관광 활성화 기대

장흥군 용산면과 안양면을 잇는 정남진대교가 최근 임시개통됐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정남진대교는 길이 430m, 폭 14.5m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다리가 임시개통 되면서 자동차로 30분 걸리던 용산면 남포와 안양면 장재 사이의 거리가 3분 안팎으로 가까워졌다.

정남진대교 가설사업은 지방도 819 호선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에서 안양면 사촌리까지 길이 3.16km의 2차로 개설사업으로 전남도가 시행을 맡았다.

201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3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장흥군은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한 기운

대로 해안도로가 앞당겨지면서 새로운 관광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활용한 관광·스포츠 마케팅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흥군 바닷가 도로의 연결성이 높아지며 지역 해안 관광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도 완성되는 모양새다.

정남진대교가 개통되면서 '남쪽 쪽빛 바다를 함께 걷는 남파랑길'이 걷기 여행자의 발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남파랑길이 가진 걷기 여행의 재미가 한층 향상된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대교 건설로 지역민의 편익이 높아지고 해안 관광 발전의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와 발맞춰 연안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e-모빌리티 기반 공고히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 2022 새해설계

김준성 영광군수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부터 벗어나는 일,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대비하기 위해 군정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e-모빌리티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경쟁력을 높이고, 백수풍력발전단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 등 수소에너지 산업기반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를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미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모멘텀 산업으로 한빛원전 폐로에 대비한 연관산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육성하며 한빛원전 1, 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광사랑카드 '그리고' 앱 기능강화, 스마트 전통시장,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 지원 등 비대면 판매환경을 구축해 소비가 늘고 골목 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모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발맞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민간 협력적 복지공동체 조성을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탄탄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탈락세대 이력관리를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통합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나눔 냉장고 운영 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 기능을 넓히고 영광군 청년육아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영평형 아이돌봄 및 청년창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TF팀을 구성해 인구 감소지역에 주어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인구활력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축사업,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8년 연속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광=박용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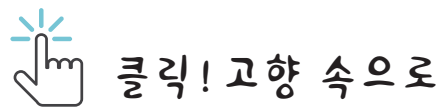
## 담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담양군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로 구분 지원하며,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로 전체 암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자를 선정해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나주초 학생·교직원, 금남동에 성금 기탁

나주시 금남동은 최근 관내 나주초등학교(교장 송춘달)에서 교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47만 8510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임재현 학생회장, 정새아 부회장이 참석해 전교생과 교직원의 십시일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임재현 학생회장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022년 새해 어려운 이웃을 돕

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 마련에 적극 동참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동진 금남동장은 "추운 날씨를 녹이는 훈훈한 성금 마련에 동참해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드린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주=조종권 기자



## 광동제약 담양북대리점, 복지재단에 물품 후원

광동제약 담양북대리점(대표 서재선)이 최근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강성남)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620만원 상당의 음료 297박스를 전달했다.

서재선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했다. 담양군복지재단 강성남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광동제약 담양북대리점 서재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삼면 박윤기 명예면장, 서삼초에 찹쌀 한과 전달

장성군 서삼면 박윤기 명예면장이 최근 찹쌀 한과 44상자를 서삼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선물했다.

박 명예면장은 "지난해 서삼면정 체협 과정 중 농산어촌유학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꼭 인상적이었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장성에서만 찹쌀 한과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삼면 학생 뿐만 아니라 방

학기간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간 학생의 뭇가지도 한과를 챙겼다. 시가로 환산하면 100만 원 상당이다.

김현영 서삼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번 선물이 따스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서삼면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성=전일용 기자